1만년 인류문명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문명 이야기’ 윌 듀런트 지음

미국의 저명한 문명사학자 윌 듀런트(1885~1981년)가 50년에 걸쳐 쓴 대작 ‘문명 이야기’(원제 ‘The Story of civilization’)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역, 출간돼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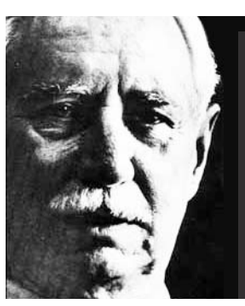
‘문명 이야기’는 고대 인류 문명의 기원에서 시작해 서양사를 넘어 나폴레옹 시대까지, 그리고 1930년대의 인도·중국·일본에 이르기까지 1만 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역사책이다.

‘문명 이야기’는 총 1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듀런트가 아내와 함께 1926년부터 매일 8시간에서 14시간을 탐방과 집필에 바쳐 1935년 제1권 ‘동양문명’을 처음 선보이고 50년 후인 1975년 제11권 ‘나폴레옹의 시대’를 끝으로 시리즈를 완성했다. 준비기간을 포함 모두 50여년의 세월을 오직 인류 문명사 탐구에만 바쳐 일구어낸 역작이다.

이 시리즈는 인류사 전체를 조망한 거대한 프로젝트라는데 의미가 있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균형 잡힌 역사 감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듀런트는 서문에서 “나는 오래전부터 선을 긋듯 역사를 나누어 서술하는 통상적인 방식은 인류 삶의 통일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역사는 통시적인 동시에 공시적으로, 분석적인 동시에 종합적으로 서술되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관점이 반영돼 ‘문명 이야기’는 정치·경제·종교·철학·문학·과학·음악·미술 등이 총체적으로 담긴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서양 문명에 절대 없어선 안 될 발명품들, 즉 서양의 정치기구 및 경제기구, 과학과 문학, 철학과 종교의 뿌리가 상당 부분 이집트와 동양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울 따름”

또한 전반적으로 서양 문명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도 ‘동양문명’으로 시리즈의 문을 연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듀런트는 “동양의 문명이 그리스와 로마문화의 배경과 토대를 형성했다”며 “우리 서양 문명에 절대 없어선 안 될 발명품들, 즉 서양의 정치기구 및 경제기구, 과학과 문학, 철학과 종교의 뿌리가 상당 부분 이집트와 동양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울 따름”이라고 적고 있다.

시리즈 총 11권 가운데 1차분으로 우선 1권 동양 문명과 2권 그리스 문명, 5권 르네상스(각 2권)가 먼저 출간됐다.

2권으로 나누어 구성한 동양 문명 편은 인류 문명의 기원과 수메르·이집트·바빌로니아·아시리아·페르시아 등 근동(近東)의 문명을 살펴본다.

특히 근동을 지나 인도와 그 주변 국들인 중국과 일본에까지 이르는데(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지독한 한 조선 장수’라고 한 표현이 재밌다) 이는 저자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1930년까지의 살아 숨쉬는 역사라는 데 의미가 깊다.

문명의 구성요소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본 1권에 이어 2권에서는 저자가 “오늘날의 모든 문명국가는 모든 지적 활동 분야에서 헬라스의 식민지”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여러 문명에 영향을 미친 그리스 문명을 다룬다.

르네상스 편에서는 1304년 페트라르카 탄생부터 1576년 티치아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혹적이고 활기 넘치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각 편마다 충분한 자료사진과 연대표를 첨부해 이해를 도왔다.

출판사측은 조만간 시리즈의 나머지 권들도 출간할 계획이다.

〈민음사·각 권 2만3000원~3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내 이상화에게 바치는 사랑의 노래

‘상화 시편-행성의 사랑’ 고은 지음

현실 참여 저항시를 주로 써온 시인 고은(78)이 주책없이(?) 시인생활 50여 년 만에 사랑을 전면에 내세운 연시집 ‘상화 시편-행성의 사랑’을 발표했다.

1983년 결혼 이후 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부인 이상화(63·중앙대 영문과 교수)에게 바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시집에는 사랑에 행복해하고 애달파하는,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한 남자’로서의 시인의 모습이 진솔하게 표현돼 있다.

이번 시집을 통해 고은 시인의 소소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쏠쏠한 재미도 얻을 수 있다. 28년 전 결혼식의 풍경, 자택에서 보내는 부인과의 시간, 여행의 즐거움 등 시집 곳곳에는 노시인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시집 머리에는 아내 이상화씨가 쓴 사랑시 ‘어느 별에서 왔을까’도 실려 있다.

또 몇 해전 아내의 선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이번 시집의 표지로 장식해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인간의 사랑 속에서 시간의 무한성과 우주의 약동으로 확장되어가는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다룬 다양한 시편에서는 대양을 넘는 사유의 세계를 보이는 대시인의 풍모를 확인할 수 있다.

고 시인은 이번 연시집과 함께 2008년 이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써온 114편의 신작을 모아 ‘내 변방은 어디 갔나’(창비 펴냄)도 출간했다.

〈창비·9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유령처럼 살아가는 탈북인들의 소외된 삶

‘유령’ 강희진 지음

최인훈이 쓴 소설 ‘광장’의 주인공 명준은 남과 북의 경계에 서 있었다면, 강희진의 2011년 세계문학상 수상작인 ‘유령’ 속 탈북자는 남과 북 그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소설은 인터넷 게임 리니지와 현실을 오고 간다. 단역 배우이자 탈북자인 하림은 현실에서는 백수에 가깝지만 게임을 할 때는 위대한 영웅이 된다. 현실과 가상현실은 남과 북 사이, 남한 내에서는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의 사이 등 경계에서 존재론적 위기에 처한 인물들의 상태를 말해준다.

소설의 흐름은 탈북자들이 주로 모이는 백석공원에서 의문의 연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급박하게 소용돌이친다.

용의자로 몰린 하림은 주변 인물 중에서 범인이 될만한 이를 생각해 본다. 이 과정에 실종자, 노숙자, 정신미숙아 등 소외된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탈북자의 삶이 펼쳐진다.

추리 소설의 얼개를 갖추고 있지만 소설은 범인을 찾는데 목적을 두진 않는다. 추리 소설의 형실을 빌려 배타적 사회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소외된 삶은 진지하게 보여준다.

또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도 던진다. 〈은행나무·1만2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반전·평화’에 ‘관용·공존’ 담아

‘… 십자군 이야기’ 김태권 지음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연재해 큰 호응을 얻었던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가 3권으로 엮어 나왔다. 1권 출간 후 8년, 2권 출간 후 6년 만이다.

이번 출간된 1, 2권은 이전에 출간되었던 ‘십자군 이야기’를 큰 폭으로 개정하여 ‘반전’과 ‘평화’라는 초기 문제의식에 덧붙여 ‘관용’과 ‘공존’의 중요성을 새롭게 담았다.

시대에 맞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본문의 많은 부분을 고쳐 그렸고, 각 권의 말미에 만화로 보는 ‘고전 읽기’를 넣어 책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더 깊이 다루고 있다.

‘예루살렘 왕국과 멜리장드’라는 부제를 단 3권은 신간이다. 이슬람 지역에 탄생한 네 개의 십자군 국가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과 무슬림의 반격을 담고 있다.

총 6권으로 기획된 책은 11월에 4권을, 2012년 6월까지는 5, 6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비아북·각 권 1만2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금 거두는 한 담배는 존재한다

‘담배의 사회문화사’ 강준만 지음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쓴 ‘담배의 사회문화사’는 우리 역사 속 담배와 흡연의 역사를 두루 살펴본 책이다. 그동안 강 교수가 커피와 축구, 어머니, 전화, 자동차, 룸살롱 등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써온 ‘한국 사회문화사 시리즈’의 열 번째 책이기도 하다.

담배에 관한 문헌과 신문기사 등을 통해 담배를 둘러싼 시대별 다양한 이슈와 흡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흥미롭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담배를 매개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도 그려내고 있다.

조선 광해군 시절 처음 한반도에 들어온 담배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정부에 담배 사업을 전담하는 전매청이 만들어지면서 ‘세금 걷는 재미’에 빠진 정부는 담배 소비를 늘려갔다.

저자는 정부가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담배 없는 세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인물과사상사·1만2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선시대 ‘뉴프런티어’ 역관들을 소개합니다

‘조선 역관 열전’ 이성각 지음

조선시대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외교부터 무역까지 활약상이 컸던 역관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 나왔다.

‘이산 정조대왕’ 등 역사 교양서를 써온 이성각씨가 ‘조선 역관 열전-입은 천 개의 칼을 가졌다’를 펴냈다.

저자는 조선의 역관들은 외교 당사국의 이질적인 사회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장점을 받아들일줄 알았던 뉴프런티어들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업적으로 숱한 성공을 일군 무역상이자, 일급비밀이나 기술을 입수한 스파이, 19세기말 개화를 충동한 선각자로 그들을 기억한다.

책에서는 역관들을 모두 네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장희빈의 숙부이자 대부호였던 장현을 비롯, 정명수·최상집·번승업 등을 다룬 ‘차이나 드림을 꿈꾸다’, ‘일본과 통하다’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 전문 역관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우리는 조선인이다’에서는 역관으로 조선의 이름을 알린 인물을 소개하고 있으며 ‘신세계에서 길을 잃다’에서는 박규수와 함께 초기 개화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오경석 등 조선 후기부터 개화기까지 활약했던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서해문집·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밥心=‘밥퍼’ 목사로 불리는 최일도 목사의 에세이. 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만난 한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끓여준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해 23년 동안 밥퍼 나눔 운동을 펼쳐온 최일도 목사는 “밥心은 낮은 곳에서 나누는 인정이고 온정이며 가난한 이들이 더 가난한 이웃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담은 ‘민심’”이라며 “이런 땀과 눈물, 정성이 어린 밥心을 대하는 순간, 축제의 시간으로 반짝이며, 정이 넘치는 잔칫집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마음의숲·1만2800원〉

▲축구화를 신은 소크라테스=노동, 욕망, 도덕 같은 인문학적 개념을 축구 경기, 그중에서도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인 프랑스와 이탈리아전을 통해 풀어본다. 프랑스의 젊은 철학자 마티아스 루가 ‘권력은 따라야 할 만큼 충분히 합법적인지’ ‘권력남용은 불가피한 일인지’ 등 철학적 문제를 ‘센터링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재미나게 분석했다. 〈함께 읽는 책·1만3000원〉

▲북벌-1659년 5월 4일의 비밀’=1993년 ‘베니스의 개성상인’을 발표하면서 색다른 역사적 상상력으로 주목받은 소설가 오세영(57)씨의 신작 역사소설. ‘허생전’과 조선 후기 북벌론이라는 소재에 작가적 상상력을 듬뿍 가미했다. 효종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날을 모티브로 효종과 훈련대장 이완 등으로 대표되는 북벌파, 북벌이라는 명분만 필요했던 송시열 등 서인, 소현세자를 따랐던 친청파 등이 어떻게 힘겨루기를 했는지 치밀하게 보여준다. 〈시아·1만2500원〉

▲신 레드 라인=1962년에 출간된 전쟁 문학의 고전. 저자 제임스 존스가 과달카날 전투에 참전한 체험과 고증을 엮어 당시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소설로 이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최대 격전 중의 하나로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이를 계기로 전세를 역전했다. 1964년 영화로도 제작돼 인기를 누렸으며 1998년에 리메이크돼 1999년 아카데미상 7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을 탔다. 〈민음사·2만2000원〉

▲이중섭을 훔치다=이중섭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그를 닮고자 했던 화가 몽우(夢友) 조셉킴(본명 김영진·35)의 눈을 통해 이중섭을 새롭게 조명한다. 천재화가 이중섭이 아닌 인간 이중섭이 실제 느낀 감정과 그가 작품에 쏟아낸 감정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작가가 세계적 미술컬렉터인 독일인 토머스 마틴의 주선으로 이중섭 그림의 복원작업에 참여했던 일화도 흥미롭다. 〈미다스북스·1만6500원〉

▲젊은 소설가의 고백=기호학자이자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80)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한 강연을 엮었다. ‘젊은 소설가’를 자처하는 에코가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 등 자신의 소설 다섯 편에 관한 이야기, 작가와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 허구의 세계가 지니는 존재론적 의미 등을 들려준다. 〈레드박스·1만3800원〉

어린이 책꽂이

▲아빠는 뻥쟁이=잠이 안 오는 아들을 위해 서툰 솜씨로 즉석에서 멋진 이야기 한 편을 지어내는 아빠의 좌충우돌 고군분투 ‘이야기 만들기’ 과정을 재미있게 엮었다. 아빠와 아들이 조그만 침대 속에 나란히 앉아 아빠는 제목에서처럼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를 꾸며대고 곁에 있는 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 우습다. 〈학고재·9500원〉

▲내가 누구게?=원로 아동문학가 신현득 시인의 수수께끼 동시집. 잠자리, 개구리, 옥수수, 빨래집게 등 동식물과 사물을 소재로 한 37편의 수수께끼 동시가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동식물과 사물을 바라보는 노시인의 시선이 따스하다. 〈사계절·8000원〉

▲무에타이 할아버지와 태권 손자=제4회 웅진주니어 문학상 대상을 받은 김리라씨의 수상작.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태국인 할아버지를 만난 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태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를 둔 관우는 태국에서 온 할아버지에게 무에타이를 배워보려고 한다. 말도 통하지 않지만 두 사람은 점차 서로 이해하고 ‘진짜 가족’이 된다. 〈웅진주니어·9500원〉

▲별똥별 아줌마가 들려주는 공룡이야기=19세기 과학자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공룡의 이빨 화석을 발견하는 이야기부터 공룡 멸종에 이르기까지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재미있게 엮었다. 또 공룡의 습성을 코끼리, 기린, 코모도 도마뱀 등 현존하는 동물의 습성과 비교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별똥별 아줌마가 들려주는 우주 이야기’ 개정판도 나왔다. 〈창비·1만1000원〉

▲평화로 빛난 별 김대중=닮고 싶은 사람들 시리즈 여섯 번째 권. 다섯 번의 죽을 고비, 감옥살이 6년, 가택 연금 14년, 국회 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세 번씩 낙선하는 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 마침내 1997년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작은 섬에서 태어난 그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남북 간의 평화의 시대를 연 위인이 되었는지 인생 여정을 사실적으로 담았다. 〈문이당어린이·9800원〉